

역사의 무대! 간신지 절과 곤고지 절



간신지 절

나라시대(710-794)의 주술자 엔노 오즈누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지금의 진언종 사찰. 본존인 비불(비공개 불상) 여의륜관음 좌상이 유명.



곤고지 절

나라시대 승려 교키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지금의 진언종 사찰. 본존인 대일여래 좌상은 높이가 3m를 넘습니다.



간신지 절과 곤고지 절은 교토·오사카에서 진언 밀교의 성지 고야산으로 가는 몇 가지 경로(왼쪽 지도의 회색 선)가 합류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두 사찰은 이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사찰은 '남조(南朝)'와 관련이 깊다고 해. '남조'란 뭘까?



교토국립박물관 공식 마스크트 토라린

남북조(南北朝) 동란과 간신지 절·곤고지 절

천황가가 남북으로 갈렸던 남북조시대(1333-1392). 두 사찰은 남조의 거점이었습니다. 남조의 고무라카미천황은 두 사찰을 임시 행궁으로 삼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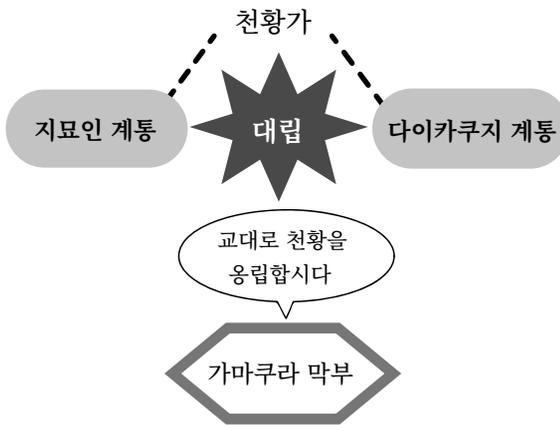
두 사찰은 동란의 역사를 말해주는 사찰이다!



복잡한 대립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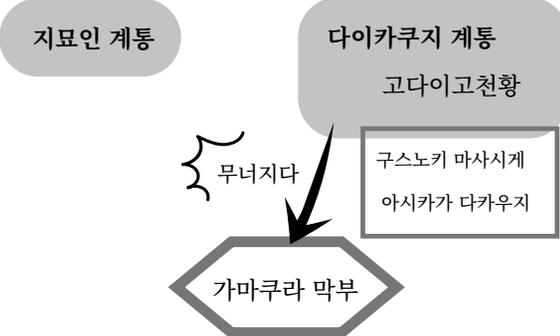
가마쿠라시대(1185-1333)가 끝날 무렵

천황가가 두 계통으로 갈려 대립하고 그 사이를 가마쿠라 막부가 중재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1333년)

고다이코 천황은 막부에 불만을 가진 무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겨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립니다. 이때 무장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큰 활약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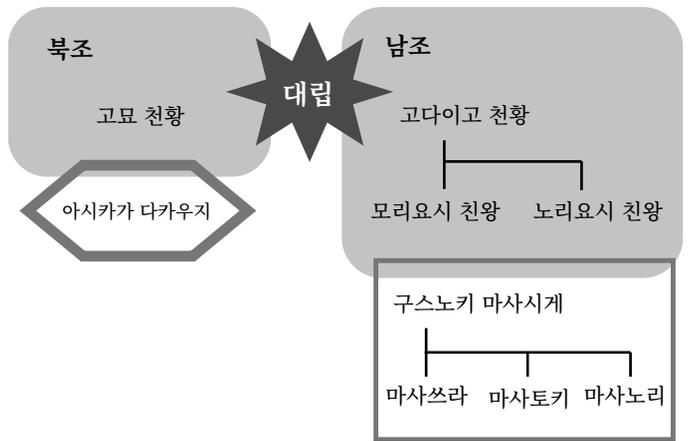


겐무 신정(1334년)

고다이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시작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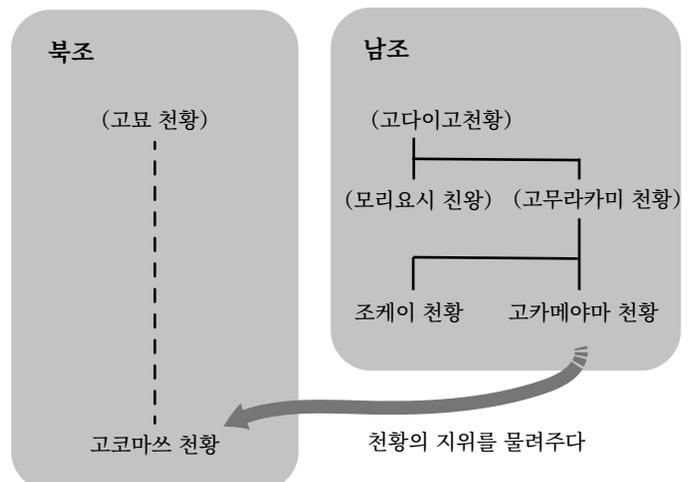
남북조 동란

고다이코 천황을 섬기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고묘 천황을 새 천황으로 옹립하고 자신은 무사의 수장인 정이대장군이 됩니다.



남북조 합체(1392년)

남조의 고카메야마 천황이 교토로 돌아오고 북조의 고코마쓰 천황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면서 남북조 대립은 끝이 납니다. 남북조 합체에는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아들 마사노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조와 구스노키 가문

악당? 구스노키 마사시게

구스노키 마사시게는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자 한 고다이오 천황 곁에서 활약한 무장입니다. 지금의 오사카부 미나미가와치 군 지하야 아카사카 마을 출신으로 어릴 때 간신지 절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당시 막부를 따르지 않는 자를 '악당'이라 불렀는데, 마사시게가 이끄는 무사단은 '악당'으로서 이 지역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들 마사쓰라도 남조를 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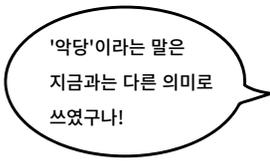
남북조시대 전쟁 서사물인 『다이헤이키(太平記)』에 따르면, 마사시게는 작전을 세우는 데 뛰어나고 마음을 다해 고다이오 천황을 섬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따라 그는 후세에도 훌륭한 무장의 표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메이지~다이쇼시대에 그려진 것입니다.



마사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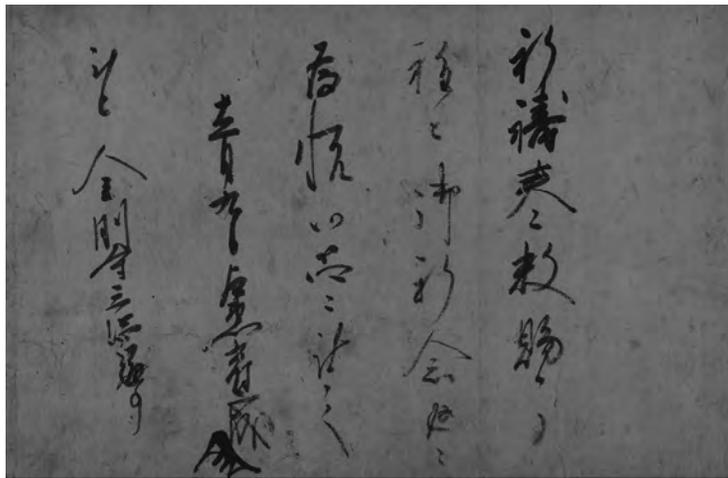
마사시게



'악당'이라는 말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구나!



구스노키 마사시게·마사쓰라 초상
고보리 도모토 그림
메이지~다이쇼시대 20세기
오사카 간신지 절 소장 전·후반기 전시



마사시게가 쓴 편지

간신지 절과 곤고지 절에는 남조와 관련된 고문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곤고지 절에 보낸 편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마침 이 무렵 마사시게는 막부로부터 자신의 성(城)을 되찾았습니다.

중요문화재 구스노키 마사시게 자필 편지('구스노키 문서' 가운데)
가마쿠라시대 겐코 2년(1332)
오사카 아마노산 곤고지 절 소장 후반기 전시

구스노키 가문과 관련 있는 갑옷

간신지 절과 곤고지 절에는 구스노키 가문과 관련 있는 갑옷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배가리개[하라마키]도 그중 하나입니다.

종래의 전투는 말을 탄 무사가 주역이었지만 남북조시대에는 단체전이 되면서 도보 병력도 늘어납니다. 배가리개는 이 도보 병력이 입던 갑옷입니다. 본래 신분이 낮은 무사가 입던 것이었으나 움직이기 편하고 착용이 간편해 상급 무사들도 입게 되었습니다. 배 부분을 감싸듯 착용한 다음 등 쪽에서 고정합니다.

중요문화재 배가리개[하라마키]
무로마치시대 15세기
오사카 간신지 절 소장 전·후반기 전시



남조의 고무라카미 천황

죽은 부모를 위해 읽은 불경



중요문화재 대반열반경후분 하권(일부)
두루마리 끝부분 기록: 고무라카미 천황 어필
남북조시대 쇼헤이 14년(1359)
오사카 아마노산 곤고지 절 소장 전·후반기 전시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죽은 후, 고다이오 천황은 12살이던 아들 노리요시 친왕(고무라카미 천황)에게 지위를 물려주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고무라카미 천황은 곤고지 절과 간신지 절을 임시 행궁으로 삼고 그곳에서 고된 시기를 보냅니다. 이 불경의 마지막 부분은 고무라카미 천황이 덧붙인 것입니다. 기록을 덧붙이기 직전에 고무라카미 천황은 어머니도 여의고 맙니다. 해당 부분에는 부모님의 명복을 빌어 이 불경을 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천황이 기도를 올린 부처

작은 애염명왕이 육각형 불감에 들어 있습니다. 애염명왕은 사랑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부처로, 출세나 적의 퇴각을 비는 부처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상은 고무라카미 천황이 곁에 두고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불상입니다.

중요문화재 불감에 들어있는 애염명왕 좌상
가마쿠라-남북조시대 13-14세기
오사카 간신지 절 소장 전·후반기 전시

천황은 비파의 고수

천황은 '뛰어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어릴 때부터 악기를 배웠습니다. 비파는 가마쿠라시대의 고토바 천황 때부터 주된 악기로 여겨졌습니다. 고무라카미 천황은 곤고지 절에서 비파 고수에게만 연주가 허용되는 특별한 곡(비곡)을 전수 받았습니다. 이 비파는 곤고지 절에 전해오는 세 점의 오래된 비파 중 하나입니다.

비파
남북조-무로마치시대 14-15세기
오사카 아마노산 곤고지 절 소장 전·후반기 전시

